신축년 새해 주목되는 학술서 3選

“정토신앙은 분명 불교다”



정토불교성립론

김호성 지음 / 조계종출판사 펴냄 / 2만2천원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김호성 교수가 자신의 정토신앙 논문 15편 중 9편을 모아 쓴 책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메시지는 “정토신앙이 불교로서 성립 가능하다”는 것이다.

오랜 세월 동안 정토신앙이 불교, 특히 대승불교의 한 신앙으로서 존재해왔던 바 새삼 정토신앙의 불교로서의 성립여부를 고찰한 까닭은 무엇일까. 저자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오래된 신앙이지만 현재 한국불교 안에서는 정토신앙을 불교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흐름이 아직도 적지 않게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 이유로는 “우리의 불교에서 주류를 이루어온 것이 부처를 자기 마음 안에서 찾는 선불교였기 때문이고 불교 외적으로는 근대로 들어오면서 이성에 의해서 납득 가능한 합리적인 것만을 믿으려는 사조 때문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 불교 안에서 정토신앙의 자리는 아직 명확히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책은 그러한 신앙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고뇌하면서, 그러한 의견에 대해서 학문적 반론을 통하여 정토신앙의 길을 모색하고자 했던 저자의 지난 십여 년 동안의 신앙적이고 학문적인 여정의 회향이다. “정토신앙 역시 불교이다. 어쩌면 정토신앙이야말로 대승불교의 꽃”이라고 말한다.

정토신앙이란 “나무아미타불” 염불(念佛)을 하면 내세에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왕생(往生)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한국불교 내에서 정토신앙의 자리는 아직도 명확히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연과학의 발달로 근대화가 가속화되면서, 이성(理性)에 의해서 납득 가능한 합리적인 것만 믿으려고 하는 시대사조로 인해 대승불교의 한 신앙인 정토신앙은 점차 그 성립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왕생의 전제 조건인 극락의 존재에 대한 회의 때문에 “만약 극락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염불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비판을 불러온 것이다.



중국 맥적산 석굴 127굴 감실 벽에 도해된 ‘서방정토변상도’의 모습. 동진 승려 지도림의 〈아미타불상찬〉의 내용을 재현한 사례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추정된다.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통해 왕생하는 정토신앙은 ‘대승불교의 꽃’이라고 저자 김호성 교수는 말한다.

정토 신앙 관련 논문 9편 모아
정토 신앙 불교 성립여부 고찰
합리·이성주의 반론에서 시작
〈아함경〉 〈무량수경〉 양립으로
‘대승비불설’론 반론 이끌어내
중생 안심세계 정토신앙 세계

저자는 이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근대에 이르러 나타나기 시작한 시대적 조류, 즉 합리주의·이성주의에 대한 반론에서 시작한다. 만해의 〈염불당 폐지〉(조선불교유신론, 1910)를 실마리로 해서 논의한 것이 제4부 첫 번째 논문이다. 두 번째 논문에서는 “대승불교는 불교가 아니다”라는 이른바 ‘대승비불설’ 론의 논의를 “대승경전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치환한 뒤, 초기 경전인 〈아함경〉과 대승경전인 〈무량수경〉의 양립 가능성을 물어본다. 실제로 이 두 편의 논문이 제1부로 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1부의 두 번째 논문에서는 근대성의 연장선상에서 극락의 존재 여부에 대한 회의로 인하여 정토신앙을 멀리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은 현실을 정면으로 문제 삼으면서 실제로 정토신앙의 역사에서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 신앙상의 경지가 있었음을 소개한다.

제3부의 두 번째 논문에서는 우리 불교 역사 안에서 선이 갖는 주도권으로 인하여, 지금도 선과 염불이라는 두 수행법의 관계 맺음이 다시금 문제되고 있다는 점을 논의한다. 이 논문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정토신앙의 학적(學的) 차원만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신앙상의 길을 모색하고 정립하려는 몸부림에 가깝다. 이상 4편의 논문이 “정토신앙 역시 불교이다”고 말하는 핵심 논문이다.

제1부의 첫째 논문은 정토신앙의 핵심 내지 본질을 아미타불 법장보살의 본원에서 찾았고, 그러한 본원을 믿음에 의하여 중생들이 얻을 수 있는 안심(安心)의 세계가 정토신앙의 세계임을 신라 시대 광덕의 정토시(淨土詩) ‘원왕생가’의 재해석을 통해 밝히고 있다.

제2부는 ‘정토신자의 삶은?’이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의 성격을 띠고 있다. 제2부의 글들은 모두 저자가 오래도록 천착해온 주제 중의 하나인 ‘출가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해답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제3부 첫째 논문은 일본 정토불교에 대한 우리 학계의 연구 성과를 정리한 것이다. 일종의 연구사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일본 정토불교를 통해 정토신앙에 입문했다. 그 책이 바로 야나기 무네요시의 〈나무아미타불〉이다. 저자는 ‘일본 정토불교’에서 정토 공부를 시작했지만 ‘일본 정토불교’가 전부는 아니다.

저자는 우리 신라 시대 화엄종의 조사 의상(義相)의 저서 〈백화도량발원문〉을 통해 극락의 존재 여부에 대한 난문에 나름의 새로운 해답을 모색한다. 중생과 아미타불의 관계를 새롭게 구성함으로써 자력과 타력이 둘이 아닌 세계(不二法門)를 그리면서 이원 대립을 넘어섬과 동시에 극락의 존재 여부라는 문제 제기를 해소한다.

佛·儒 대론 시원·과정·결과 규명

책 〈불교와 유교의 철학논쟁사〉는 한국 사상사의 대표적 철학 논쟁 중 하나이며, 한국 지성사를 한 단계 끌어올린 대론으로 평가받는, 여말선초 불교와 유교 간의 논쟁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 불교와 유교의 논쟁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전개과정을 거쳤는지, 그 핵심 주제는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 사회에 끼친 사상적·정치적·사회적 의미는 무엇인지 등을 입체적으로 조망했다.

불교와 유교는 한국 사상사의 두 근간이 되었지만, 그 전개 과정은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 불교는 삼국 시대에 전래되자마자 융성했지만, 유교는 조선 시대에 이르러서야 꽃을 피운다. 불교가 전래된 이후에 일반 민중들은 삶 속에서 윤리적 자각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상적으로도 인문학적인 사유와 논리의 틀을 형성할 수 있게 됐다.



불교와 유교의 철학 논쟁사

도웅 지음 / 운주사 펴냄 / 2만5천원

여말선초 불교·유교 교체 현상
상호대응 총제적·심층적 조명

책 〈불교와 유교의 철학 논쟁사〉는 다섯 가지의 주된 연구 목표를 제시한다.

첫째, 배불론의 핵심 쟁점이 되는 이단과 진호국가설의 사상적·종교적 시원을 알기 위해서 이와 관련된 인도 불교의 내용들을 검토한다. 둘째, 여말선초 불교·유교 교체 과정에 내재된 사상적 근거와 배경을 규명한다. 셋째, 여말선초 불교·유교 교체의 사상적 토대가 되었던 중궁의 불교·유교 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넷째, 여말선초 불교·유교 간의 철학 논쟁의 중심인물인 정도전과 기화를 중심으로 배불과 호불에 대해 규명한다. 다섯째, 여말선초 불교·유교 대론의 독자성과 그 의미 파악이다. 여말선초 불교·유교 논쟁은 여러 면에서 사상적 특징이 엿보이는데, 중국의 불교유교 논쟁을 사상적 기반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그 논리와 내용이 보다 구체적이며 철저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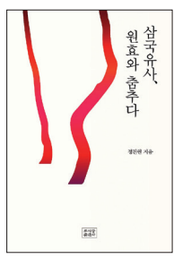
책은 여말선초 불교·유교 대론의 시원과 과정 그리고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규명함으로써 그에 내포된 역사적·철학적·문화적 의의를 살펴본다.

박재완 기자

춤추는 신라의 붓다 ‘원효’

〈삼국유사〉속 원효의 모습을 되살려낸 책이다. 〈삼국유사, 여인과 걷다〉, 〈삼국유사, 자장과 선덕여왕의 신라불국토 프로젝트〉를 통해 과거의 고서(古書)에 박제되어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현대 언어로 그려냈던 정진원 교수가 이번엔 〈삼국유사〉 속에 실린 원효의 열 가지 이야기를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석학이자 신라의 붓다로 일컬어지는 ‘원효’의 모습을 다시 그렸다. 길고 긴 세월을 뛰어넘어 지금의 중생과 마찬가지로 현실 속에서 고민하고 아파하면서, 그럼에도 내일을 향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신라시대 군상들의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

원효는 신라의 붓다로 불리며 7세기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중국을 넘어 세계적인 석학으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원효는 훌륭한 학승으로 방대한 책을 남긴 저술가이기도 하지만 자유로운 영혼의 대중예술가이기도 하다. 무애박을 두드리며 걸림 없는 노래와 춤을 추며 신라의 천촌만락(千村萬落)에 불교를 전했다.



삼국유사, 원효와 춤추다

정진원 지음 / 조계종출판사 펴냄 / 1만7천원

책 속의 10개 이야기 바탕으로
‘일연이 바라본 원효’를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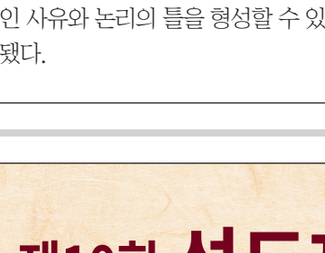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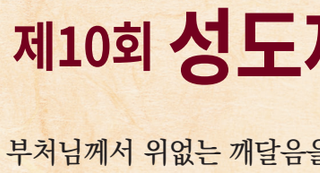
저자는 자장과 동시대를 살다 간 원효의 이야기에서 우리 불교의 특징인 회통불교를 〈삼국유사〉에 어떻게 남기고 갔는지 그 자취를 더듬어간다.

〈삼국유사〉 속에서 원효가 등장하는 연대는 이야기에 따라 들쑥날쑥하지만 617년에 태어나 686년 70세로 입적하기까지의 파란만장한 그의 생애가 다채롭게 소개된다. 태종춘추공조 662년, 당나라 소정방이 보낸 ‘난새와 송아지’ 그림을 해석하여 고구려와의 전투에서 이긴 이야기 등 저자는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이야기의 순서와 ‘원효불기’ 조를 통한 그의 생애를 중심축으로 삼고 다른 책의 이야기들을 섞어 ‘일연이 바라본 원효’라는 인물을 ‘정진원이 바라본 원효’로 재구성했다. 〈삼국유사〉를 보충해 줄 〈삼국사기(三國史記)〉, 〈화랑세기(花郎世記)〉, ‘고선사서당화상비(高仙寺誓幢和尙碑)’와 〈송고승전(宋高僧傳)〉 등을 비롯한 관련 자료와 그의 저서들도 두루 다루고 있다.

박재완 기자

제10회 성도재일 기념 승보공양대법회

부처님께서 위없는 깨달음을 성취하신 성도재일을 봉축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며 대덕스님들께 불자들이 여법한 공양을 올리는
「승보공양대법회」를 준비했습니다.
금번 「승보공양대법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서
‘찾아가는 승보공양’으로 봉행하였으며 불자들이 스님들께
공양 올리는 의미와 가치를 되새겨보는 소중한 시간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BTN불교TV 편성시간 안내

[성도재일 특집]
제10회 성도재일 승보공양대법회
본방송: 1월 20일(수) 11시 30분, 20시
재방송: 1월 24일(일) 08시 30분

[설특집 다큐멘터리]
아름다운 인연 '찾아가는 승보공양'(가제)
본방송: 2월 12일(금) 19시 30분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사무국 051-501-7554

2021 謹賀新年 신축년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본사

황악산 직지사

사부대중일동

경북 김천시 대항면 직지사길 95 www.jikjisa.or.kr
Tel (054)429-1700~3, 429-1713~15 Fax (054)436-3174

